

템플스테이, ‘공감’을 부른다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성료, 5대결사에도 뜻 모으기로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국민과 세계인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되자. 그동안의 성과나 대의명분을 이유로 남을 탓하기 보단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진하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5월 30일~6월 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89개 사찰의 200여 운영자 스님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명 문화와 평화 나눔의 템플스테이 실현 선

안’을 결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템플스테이에 대한 일부 왜곡된 시각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편협을 넘어 민족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템플스테이는 특정 종교 활동이 아닌 전통문화체현을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5월 31일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내부 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을 다지며 스탬플스테이 실무자들의 역할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템플스테이의 실무자들은 승가의 정신문화를 불교의 핵심으로 알고, 이를 통해 승가와 참가자, 신도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힘쓸 것을 강조했다. 불교문화사업단에

대해서는 재 참가 유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다문화가정, 결혼 가정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젊은 층들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논의됐다.

문화축제는 템플스테이 운영 역사를 되돌아보고, 각 사찰별 템플스테이 사진전, 사찰 고유 프로그램 공모전, 체육대회, 음악회, 장기자랑 등 실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통해 앞으로 템플스테이의 더 큰 발전과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고, 향후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활동은 부처님 가르침 답아”

환한 미소가 빛나는 동국대 일산병원 공정에 자원봉사자



“가려서 하면 봉사가 아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건 다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모두 봉사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자원봉사 중인 공정에(68·사진) 씨는 일주일 중 나흘을 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동국대병원 외에도 지역내 다른 병원과 복지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 씨는 젊은 시절부터 지역 내 어머니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어왔다. 어머니회 회장 시절 회원들과 함께 마을의 폐품들을 수거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TV에서 80대 노인이 병원에서 자원봉

사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공 씨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50대였던 공씨가 고령의 노인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밥 배식 봉사도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지요. 그러다 동국대 병원을 문을 열면서 이곳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공정에 씨는 2007년부터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건강검진안내센터에서 원활한 검진과 진료를 위한 안내가 그의 몫이다. 언제나 환하게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를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불자라고 하면 환자들이 제 웃음이 관세음보살을 닮았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불자로써 그 이상의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정말 보람되고 마음이 뿌듯하지요.”

하지만 공정에씨도 봉사활동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봉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당황했으나 이제는 웃으며 대처한다. 그러던 나중에는 상대방이 미안해하기도 한다. 오랜시간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을 낫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믿기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다.

공정에 씨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건강의 중요성을 항상 잊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관세음보살님께 가족들이 천진불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공 씨는 절에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일 만큼이나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씨는 절에 못가는 일이 있어도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가 다니는 절에서도 공정에씨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스님이 직접 불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활동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남편도 공씨의 활동을 이해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공씨에게 큰 힘이 된다.

“가끔 봉사활동을 하는 젊은 불자들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봉사활동은 부처님 가르침과 답이 있습니다.” 박기범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달의 환우

희귀난치병 루푸스 앓고 있는 남기우 군

키워준 조부는 혈액암, 조모는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기우가 행여 넘어질까, 다칠까, 남에게 손가락 받지 않을까 마음 졸였는데, 이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6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에 남기우(14) 군을 선정했다. 남기우 군은 현재 루푸스(전신 홍반성 낭창)라는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다.

남기우 군은 2009년 4월 감지기 장염증세와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군으로 몸의 면역체계가 고장 나, 외부의 침입자인 세균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신장, 피부, 혈액, 관절, 위장관 등을 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남기우 군은 루푸스로 인해 급성신부전증과 확장성 심근병증까지 앓고 있다.

남기우 군은 현재 햇빛을 보면 피부 발진과 심한 두통에 시달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다. 또 심장에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일주일에 세 번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남기우 군의 조부모님은 “혈액투석을 받는 날에는 기우가 너무 힘들어해 기진맥진하고 토할 때가 많다”며 “결국 초등학교 5학년도 마

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기우 군은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3살 때부터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현재 남기우 군의 조부는 혈액암으로, 조모 역시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남기우 군의 한 달 생활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보조금 60만원이 전부이다. 치료비로 쓰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은정 기자(02)734-8050,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참선으로 구미호 쫓아

조계사, 6월 4일부터

도심 속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행 프로그램이 나왔다.

조계사(주지 토안)는 6월 4일~8월 13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11회에 걸쳐 조계사 하안거 11요절야정진 ‘여름 밤 구미호를 쫓다’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법문과 호흡명상 108배, 음악회,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법문은 토진 스님과 일수 스님(조계사 자율선원 선원장), 명법 스님(조계사 선원원 담당)이 진행하며 일수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을 진행한다.

기본 참선 시간에는 50분 실참, 10분간 포행, 선체조와 기공을 통한 참선 예비과정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매회 명상 음악회, 선관연 영화 2회 상영으로 대중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불교여성광장 ‘AGORA’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불교여성광장 ‘아고라(AGORA)’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바자회를 통해 지역로운여성, 승만경 연구회, 여성

불자108인회, 불교여성연구소,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웰다임운동본부, 사찰음식문화센터, 여성인재개발센터, 건강가족센터, 재소자교회센터, Young108 등 10개 센터가 전문화된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 1만 명이 100만원 씩 모금해 100억 규모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02)722-2101 이은정 기자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충북 보은서, 11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6월 11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 및 보은중학교 운동장에서 ‘제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을 개최한다. 대회는 축구구를 통해 각 지역 단체 포교활동가의 친목 도모와 지역 포교역량을 분사중심으로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가족단위의 신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등 교구본사에서 1000만원의 지역포교활동 지원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이재복 저음(280면) 정가 12,000원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요법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팽창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짝~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교차로)
책신청 054)637-9810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영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신문 0204호 · 207-01-43500